

천사의 미스터리: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성경 말씀: 지금은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1. 유대인들의 귀환, 2. 이슬람의 확산, 3. 적그리스도의 출현, AI 등 과학 기술로 세상 통제, 유전자 조직, 인간 복제 등

4.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24:37-39). 롯의 때와 같다(*) (눅17:26-30).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 창6:1-4절, (*) 5-8절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는 누구인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천사들?

재림의 때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알아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며 요세푸스 등 여러 사람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천사들로 본다.

그러나 여러 성도들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도발성 이메일, "목사님의 해석은 우리 교회의 믿음과 전통에 맞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합니다.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엘 레이지, 무료 PDF 받기(KeepBible.com에서)

설명

창6:2, 4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창1:1의 하나님도 엘로힘, 그 뒤에도 엘로힘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여호와(주)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 총 다섯 번 나오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을 의미한다. (*) (창6:2, 4; 욥1:6; 2:1; 38:7).

창세기 6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이 있다.

(*)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창6:4).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 존재"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흠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은 성경이나 세속 역사에 없다.

한편 여기 나오는 거인은 영적 거인이 아니고 실제적 거인들로 홍수 이후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 엠 족속(창14:5; 신2:10-11), 수스 족속(창14:5). 아낙 족속(신2:10-11; 수11:21-22), 르바 족속(창14:5; 15:20), 삼숨 족속(신2:20). Rephaims, Zuzims, Emims, Anakims, Zamzummims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미터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으며 바산의 왕이던 거인 욱은 길이가 4.2미터, 너비가 2.1미터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신3:11).

신약성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보여 준다.

(*)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른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거부함)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 (*) 사도 베드로 역시 벨후2:4-6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 (*)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마22:30)는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부활 때에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실로 성경에는 성이 없어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다 남성이며 남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다.
- (*) 성경에 언급된 거인은 모두 고대에 유명한 남자들이며(창6:4)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유명한 자들, 단군 신화, 박혁거세 등 여자 거인은 없다.

아이가 수태될 때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이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타락한 천사의 성염색체가 모두 YY이고 이것이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 그러므로 창세기(모세오경)에 관한 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물론 구약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유대인 역사가들이나 성경 이외의 그들의 작품이 무어라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때로 필요하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아마 요세푸스일 것이다. 신학교에 가면 누구라도 요세푸스에 대해 조금은 배울 것이다.

위키 백과사전은 요세푸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틴어: Flavius Josephus 플라위우스 요세푸스, 고대 그리스어: Φλάβιος Ἰώσηπος 플라비오스 이오세포스, 기원후 37년 경 ~ 100년 경)는 1세기 제정(帝政)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다. 기원후 66년에 발발한 유대 전쟁에서 유대군을 지휘하여 로마군에 맞섰으나, 로마군의 포로가 된 뒤 투항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배려로 풀려나 로마 시민이 되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은 새로 로마 시민이 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호자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가문을 이름을 따 '플라비우스'를 가문이름(nomen)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티투스의 막료로서 예루살렘 함락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훗날 이 전말을 《유대 전쟁사》라는 책으로 남겼다.

요세푸스의 글은 구약 시대의 역사를 보여 주는 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의 책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늘 참고하는 고전이다.

- (*)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기술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중요 사건들이 다 언급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정통과 유대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유대인들의 견해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담은 구약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니 참조하면 좋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는 “유대 고대사”의 1권 3장에 나온다.

Antiquities of the Jews

For many angels¹¹ of God accompanied with women, and begat sons that proved unjust, and despisers of all that was good, on account of the confidence they had in their own strength; for the tradition is, that these men did what resembled the acts of those whom the Grecians call giants. But Noah was very uneasy at what they did; and being displeased at their conduct, persuaded them to change their dispositions and their acts for the better: but seeing they did not yield to him, but were slaves to their wicked pleasures, he was afraid they would kill him, together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those they had married; so he departed out of that land.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부른 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일을 행하였다.”

각주 11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느 면에서 과거의 거인들이었다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의견이었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는 이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하였는데 내용이 방대하여 여러 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유대 고대사 1).

요세푸스 1 유대고대사, 생명의 말씀사

유대인들의 이런 증언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 준다.

(*) 내셔널 지오그래픽(1세기 유대인들의 이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은 Bryan Huie가 지은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THE SONS OF GOD" IN GENESIS 6>

http://www.herealittletherealittle.net/index.cfm?page_name=Genesis-6-Sons-of-God

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님 당시의 역사였던 요세푸스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인 종족을 믿었음을 보여 준다.
2. 역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필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3. 외경인 에녹서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4. 유대인들의 역사서 ‘주빌리의 책’(Book of Jubilees)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5. 주후 2세기에 살았던 저스틴 마티(순교자 저스틴)도 Second Apology 5장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6. 주후 240년경에 살았던 북아프리카의 주교도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7. 베드로후서 2장 4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8.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창6; 신32:8; 욥1:6; 2:1; 38:4; 시29:1; 89:5).
9. 유다서 6절이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0. 유명한 성경학자인 벌링거(Bullinger) 역시 그의 저서 <Companion Bible>에서 같은 견해를 지지한다.
11. 또다른 역사서 야세르의 책의 4장 18절은 심지어 짐승들도 혼합되어 하이브리드 종류가 나온 것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물로 심판하셨다(창6:7).
12.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7절 역시 이를 지지한다.

이런 증언을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주후 300년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견해를 초지일관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준다.

연구를 위해 구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이라는 검색어로 문서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천주교회의 성인인 히포의 어거스틴(354-430)이 변화를 만들어냈다.

1. 어거스틴 이전에 고대 작가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던 견해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거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 - 외경에서는 이들을 순찰자라고 부름 -과 사람들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이브리드 종족이라는 것이다.
2. (*)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연설에 의거하여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시>(신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후손들로,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정의하였다. 어거스틴 당시 및 그 이후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았다.

역사는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에서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임을 보여 준다.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천주교회를 위해 연옥 교리를 만들고 영혼의 자유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며 교회가 곧 왕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인물이다.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유대인)을 신약의 교회가 대체함으로써 천년왕국 같은 실제적인 왕국은 이 땅에 없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를 도입하고 확립한 인물이다.

어거스틴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힘입어 천주교회는 그 뒤로 무려 1000년 이상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유대인과 성경 신자 말살 정책을 펴나갔다. 이것을 역사는 ‘반셈족주의’(Anti-Semitism)라고 부른다. 천주교회는 유대인 자체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말살하려 했고 바로 이런 시도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왕국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개념을 바꾼 것이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유대인과 성경 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카톨릭 주의의 무지와 미신에 갇혀 살게 되었고 이에 역사는 이 시기를 중세 암흑시기라고 부른다.

천주교회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고 이에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다. 이런 비성경적 카톨릭 주의와 반셈족주의의 기반을 놓아 준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이러다가 1517년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때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 어거스틴 추종자였다.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들은 어거스틴의 영향으로 무천년주의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에” 이론을 믿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따라 예언과 관련된 성경을 거의 다 영해(靈解)한다. 그 결과 창세기 6장도 이런 차원에서 영해가 되어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니엘서 2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있을 넷째 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41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42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43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자기를 사람들의 씨와 섞으려 했던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성경은 여기서도 전혀 다른 번역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 개역성경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헨리 모리스는 20세기에 미국에서 창조 과학을 확립한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공학 박사입니다. 창조 문제에 관한 한, 창세기에 관한 한 이분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리스는 생전에 <창세기 기록>라는 매우 두꺼운 창세기 주석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에 의해(created) 존재한 자들이며 사람에게서 태어난(born) 자들이 아니다. ‘강력한 자의 아들들’ 같은 표현도 역시 천사들을 가리킨다.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 계시록 12장 7-9절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순리적으로 분명하게 보여 줘도 이미 믿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득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어거스틴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고 콧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무슨 진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되어 넘어가는 순진한 성도들만 불쌍한 것이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런 사람들의 헛된 전통과 교리를 부인한다.

오직 우리는 성경이 평범하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음과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전달됨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보존된 성경으로 성경을 풀 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성경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온전한 해석이다.

(*) 미래 일들의 개요

(*) 휴거

(*) 고전 성경 구정

천사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천사(Angel) 임무를 수행하는 자(심부름꾼). 이것은 히브리말이나 그리스말 모두 사자(使者)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눅7:24).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마1:2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으로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 13:2).

천사는 현현할 때 꼭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창19:1, 3, 소돔의 남자들의 성적 만족의 대상, Sodomites, 신약의 예: 행10:3; 30; 계21:9; 17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성경은 천사의 수가 매우 많음과(단7:10; 마26:53; 눅2:13; 히12:22)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 주고(왕하19:35; 시103:20; 벧후2:11; 계5:2; 18:21; 19:17) 그들의 일을 보여 준다(삿 13:20; 단9:21-23; 마13:49; 26:53; 행27:23; 계8:13).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겔10:1).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는 왕좌, 통치, 권능, 정사 등 여러 등급이 있다(골1:16; 계12:7).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며 한 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Spirits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